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2월 2일(금)
...(음력 11월 9일)...
Пятница
2 декабря 2022г.
№ 47 (1201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3일은 러시아에서 법학 전문가들의 날로 기념한다.

이(리) 예카제리나는 사할린국립대를 졸업한 후 이미 7년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46 '젠투주나(진주)'유치원에서 상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 동안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이 많고, 성실하며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예카제리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의 포상으로 감사장을 받았다.

(취재: 이에식 기자)

사할린주에서 식품 생산에 3% 증산

사할린주에서는 내년에 약 15,000톤의 육류를 생산할 전망이며, 47,000톤의 우유와 약 1억 3천만 개의 달걀을 얻도록 할 계획이다. 노지 채소 수확량은 2만2천 톤으로 늘리며, 감자는 4만4천 톤(다년간 평균 수치) 이상, 온실 채소는 8천5백 톤 이상을 수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풍부한 세부영양소와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유한 제빵도 4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식품 생산의 증가율은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역 농산물 총생산액은 10억 루블리를 증가시켜 170억 루블리를 초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치는 '사할린주의 농업 발전과 농산물, 원료, 식품 시장 조정'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계획 지표들이다. 내년에 이를 위한 예산 법안의 기획으로 28억 루블리가 배정됐다. 이는 원래 예산안 법률에 의해 배정된 예산의 한도에서 5천9백만 루블리가 넘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18억 루블리 이하로, 2025년에는 17억 루블리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국가프로그램에는 지표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10개 프로그램의 항목이 있으며,

일부 농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언급하고 있다.

사할린주 농업·유통부 인나 파블렌코 장관은 "농축산업과 협동농산업 지원 장려금을 계속 제공할 방침이며, 가족 단위 축산농장 조성과 개발에 5개 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웰스크, 아니와, 흠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19개 원예 협동농장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농업 기술단지의 개선이 계속 이뤄져 국가프로그램의 생산 지표는 3.5% 이상이다. 현재 10년 이하인 장비들의 지표는 62.1%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일에 종사하기 위해 사할린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 전문가들은 계속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할린주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속화' 기획이 추진 중이다. 이 기획의 목표 중 하나는 농업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협동농산업 개발이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초보 농업인들에게 농업 창업을 위한 10개 장려금을, 4개 협동농산업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협동농산업 분야의 전문센터 지원도 계속할 전망이다.

서울, 제20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개최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대통령, 수석 부의장 김관용)가 주최한

해외지역회의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 부의장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부터 지구 반대편 중남미 지역까지 전 세계 131개국에서 오신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느낍니다."라고 29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전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자문·건의 강화 △지역 현장의 평화통일 중심 역할 수행 △재외동포와 함께 평화통일 공공외교 선도 △청년 세대의 평화통일 강화 등 민주평통 사무처가 설정한 4대 활동 방향에 관해 소개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민주평통 의장과 통일 대화,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만찬이 있었고, 30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정책 설명과 분임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동부협의회(회장 황돈연)에서 이번 해외지역회의에는 8명의 자문위원과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토론에서 동 협의회 활동 실적이 소개되었고, 황돈연 회장은 주요 사업으로 통일 강연과 마스터클래스를 설명했다. 또한 이르쿠츠크, 마가단, 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에서 온 고문들과 위원들은 현지에서 한국 관련 문화 사업 등 소개했다.

행사는 12월 1일에 현장 시찰로 마무리되었다.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은 청와대,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서울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본사 기자)

단신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선거에 3명이 후보 등록

2022년 12월 17일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결산 및 선거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11월 30일 주한인협회 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고 주한인협회 측이 전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 3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고문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팀종환 회장,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천영곤 회장이다.

주향토박물관, 제3회 향토연구 학술회의 개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주최로 아이누와 마야 연구자인 유리 크노로조브를 기념하는 제3회 향토연구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3일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바롭스크, 소베트스카야 가완,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지방의 학술기관에서 70여 명의 연구자들이 향토 민족의 진술 및 역사 문화 문제를 논의하고, 사할린과 연해주의 정착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 고고학 분야의 발굴과 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향토연구의 대중화에 있어 학술적·방법적 문제>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원탁회의에서는 박물관 사업에 새로운 기획들과 극동지역의 자연과학연구 성과를 설명한다.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단기 군복무 자원병 모집

'러시아 연방. 홍보' 국가 포털사이트에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군으로서 참전을 원하는 자원병은 등록 후 단기간 복무한다고 알려졌다. 정부 군사기획 사이트에서는 자원병은 3개월간 계약을 하고 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되며, 계약에 따른 단기 복무 자원병에게는 휴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11월28일에는 사할린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병 모집을 알렸다.

동부 군관구의 병무처 처장인 이고리 코발료브는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했다. 모병은 등록 및 건강검진을 통해 10일 내로 선발된다.

복무 계약의 서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콤소몰스카야 거리, 219에서 접수하고 있다.

신문 발행 표에 따라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2022년 12월 16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выхода газеты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ыйдет 16 декабря 2022 г. Редколлегия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작

눈물의 섬, 사할린

김경순

(전호의 계속)

저희들도 어머니께서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고, 듣고 하니까사연이 뻗속 깊이 사무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큰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큰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자주 흘렸어요.

88올림픽 후로 우린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발달돼서 국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사할린에 있는 우리는 당당해 했으며, 자랑스러워했고 또 엄청 기뻐했어요. 그건 저의 부모님의 고향이며, 저도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한국인의 자식이니깐요. 또 한국이란 그 나라에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큰오빠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한국서 누가 오기라도 하면 그렇게 형제 간처럼 반가웠어요. 큰오빠가 사는 나라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만큼 큰오빠가 그리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그토록 애та게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워하셨으니까요...

1989년 사할린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한국 적십자사가 한국의 비행기로 사할린 한인들을 태워서 한국을 방문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때 영화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며 환호하고 손뼉을 쳤어요. 그러나 저만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혼자 쏟아지더군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심장병으로 벌써 5년째 아무데도 외출을 못하셨으니까요. 방 안에서만 살살 다니셨어요. 어머니께서 걸어다니실 때는 한국과 벽이 가로막혀 못 가셨는데, 지금은 그 벽이 터져 고향의 아들을 만나보고, 구경도 하시라 하는데도 이제는 병에 걸려 못가시니 이게 얼마나 원통해요...

눈물이 나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

게 하니 어머니는 못 간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이웃에 먼저 다녀오신 분이 말씀하시길 한국에 가시면 휠체어를 태워서 나가니 갔다 오시라고 했어요. 50년이란 긴 세월, 아들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란 셈으로 어머니는 고향 방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내가 가다가 죽으면 아들에게는 내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젊어서 이별하고, 이 지경이 돼서 아들 앞에 나타나기가 싫어요... 항상 젊은 어머니를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요.

1990년에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큰오빠가 한국 비행장으로 온 가족과 함께 마중나왔어요.

'아버지 - 김중학, 어머니- 강화금 환영'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비행기에서 손님들이 모두 다 나와서 울며불며 난리 법석인데 큰오빠에게는 누구도 다가오질 않았대요. 아무리 플랜카드를 들고 서있어도 부모님이 나오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혹시 전화를 잘못 받았나? 다른 사람인데 착각을 한 건 아닌가?...'하며 생각할 때 저 먼 곳에서 하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큰오빠는 생각했대요. '저 할머니는 누굴 만나기에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또 휠체어까지 타면서 여기까지 오실까?...' 그런데 그 휠체어가 큰오빠가 서 있는 곳으로 오자 비로소 어머니와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어머니는 아들을, 아들은 어머니를 서로 못 알아봤대요. 큰오빠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하고 부르니 어머니는 "이게 누구여???" 하며 큰아들의 불을 쓰다듬으셨대요. 이미 어머니는 앞을 잘 못보고 계셨어요.

50년 만에 병투성이가 되신 어머니와 아들과의 상봉!!! 그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큰오빠는 비행장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대요. 그것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제목은 '50년 만에 부모님과 아들의 상봉'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다음 차례로 한국을 방문하신 분이 그 신문을 저의 집으로 가져왔어요. 부모님께서는 아들 집에서 평생 처음 보는 가족 모두와 한국을 구경하며, 재미있게 한 달을 보내셨어요. 큰오빠는 한국에서 부모 없이 혼자서 훌륭하게 자라 학교 선생님이로 일하고 있었어요. 큰오빠는50년 만에 부모님과 만났다고 고향에서 큰 잔치를 차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친척분들, 아는 이웃들 모두를 초대했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지요. 부모님은 또 사랑하는 큰아들과 이별해야 했고, 그리던 고향땅을 등지고 와야 했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한국에서 아들과 그 식구들과 작별하고, 비행기를 타고3시간 30분 만에 사할린 땅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50년이란 길고 긴 세월이 흘러서야 서로가 만났네요... 그런데 두 번째 생이별이 웬말인지. 아버지는 돌아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비행기도 평생 처음 타보시고요. 그리고 큰오빠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참, 아드님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고 칭찬해주셨대요. 아버지는 큰 벼슬을 하고 온 사람 같으며 엄청 기뻐하셨어요. 큰오빠는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셨다고 국무총리상을 받았대요. 그외에도 여러 표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할린으로 돌아오신 지 두 달 후에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뜨셨어요. 그나마 다행이

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고향땅을 밟아보시고, 아들과 만나보신 것이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어요. 어머니와 같이 일만 하시던 아버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너무나 쓸쓸해 하셨어요. 두 분이 금슬이 아주 좋으셨어요. 놀러가시라 해도 안 가시고, 여름에는 텃밭에서 일하시고, 겨울에는 글을 쓰시며 책을 읽으셨어요. 그러시다 병에 걸려 끝내 고향으로 영주귀국도 못 하신 채 세상을 뜨셨어요.

저는 한국의 큰오빠와 조카들과는 종종 만났어요.

사할린에서 저는 한글 공부도 설원화 선생님에게서 더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배우는 도중에 부모님에 대한 가사가 머리에 떠올라서 가사를 적어 이병일 원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원장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너무 슬프게 모두들 잘 들었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춤을 열심히 가르쳐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 춤도 덩실덩실 잘 추신답니다. 우리나라의 춤과 왈츠도 한국 사람인 원장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우리와 공원에서 춤 연습을 종종 합니다. 처음으로 공원에서, 또 산 위에서 재미있게 춤을 연습했어요. 그 누가 우리에게 공원이냐 밖에서 춤을 추자고 하겠어요?

이병일 원장님이 우리 사할린에 오셨기에 70이 넘는 우리들이 공원에서, 밖에서 재미있게 춤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쓴 노래 두 곡을 한국의 조카에게 보냈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가사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쓰라리게 와 닫고, 이 노래를 들으실 아버지의 눈물 글썽한 모습이 선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 불쌍하셨지만 너무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큰오빠는 2021년도에 세상을 뜨셨어요. 노래를 조금 일찍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쓸 수 있었어요.

이병일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써서 보내드리니 잘 읽으주셔요.

그 눈물의 섬(곡: 그 겨울의 첫집)

사할린으로 끌려왔어요.

조선 땅에서 그 옛날

일본놈들의 시달림 받고

늘 괴로움에 떨었죠.

가고픈 고향, 한국 땅으로

부모 형제 사는 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리워라. 내고향

사무친 한을 풀어주세요.

하루속히 날가고파

그늘진 세월, 고향 그리며

철천지한이 됐네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꿈에서 본 내 고향

눈물의 부두 (곡: 칠갑산)

부모 잃은 어린 마음을

누가 알아 주리오

외롭고 서럽던 아픔

누구에게 원망 주리오

어머니는 내게 같이 떠나자

애달프게 속삭이셨지만

할아버지 무서워 끝내

따라간단 말을 못했소

아- 어머니 어딜 가셨소

그 손 잡고 같이 갈 것을,

그랬소, 그랬소.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날

배 떠난 부두에 나가

하염없이 목놓아 울었다오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끝)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존재하지 않는 공장산 연어알, 모스크바에서 발견

사할린의 유명업체가 생산한 연어알 통조림을 모스크바 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직원들이 상점들에서 발견했다. 이 제품의 생산업체는 몇 년간 아무 제품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견된 가짜 연어알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식품이다.

11월 23일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은 가짜 연어알 적발을 알리며, 이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제품명 '과립형 연어알', 제조업체는 '페르세이'(주소: 사할린주 코르사코브시 크루타야 거리 42. 법인번호6504027411)와 '나위'(주소: 사할린주 코르사코브시 나고르나야 거리 57. 법인번호 6504011323)회사이다.

위의 업체들은 이미 몇 해 전 문을 닫은 업체들로서 '페르세이'업체는 2019년에 12월에 문을 닫았고, '나위'업체는 2017년 12월에 폐사됐다.

이런 불량식품은 식품위생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연방 소비자권리보호및 소비자 만족 분야 감독 서비스부는 이러한 불량식품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식품 납품과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와 구매자들에게 손해보상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도 유명업체의 가짜 연어알 판매 사례들이 찾아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사회안전 및 행정 감독청은 이 불량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 구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Партию красной икры с несуществующих заводов Сахалина нашли в Москве

Лососевую икру в банках, произведенную сахалинск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призраками, обнаружили на прилавках сотрудники московского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редприятия, указанные на упаковке,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е выпускают никакой продукции. Фальшивая икра может нанести вред здоровью потребителей.

23 ноябр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сообщил об обнаружении фальсифицированной икор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упаковке деликатеса ясно видна надпись: «Икра лососевая зернистая в банках». А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указаны ООО «Перс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 Корсаков, ул. Крутая, д. 42, ИНН 6504027411) и ООО «Нав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 Корсаков, ул. Нагорная, д. 57, ИНН 6504011323).

Данные компании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закры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едприятие «Персей» ушло с рынка в декабре 2019 года, ООО «Нави» — с декабря 2017-го.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 с неверными данными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м требованиям. Это представляет опасность для человека.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требую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станов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продажу фальшивой икры, а также возме-

стить приобретателям и потребителям убытки, возникшие в связи с отзывом продук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продажи икры неизв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Департамент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нтро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упреждает об опасности приобретения такого товара, ведь эта покупка может угрожать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ю человек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만두와 그 친구들〉 미식 마라톤에 주 주민과 방문객들을 초대

〈만두와 그 친구들〉 미식 마라톤이 11월21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됐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12개 카페와 바,레스토랑이 참가했다고 전해졌다. 미식 축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미식 마라톤의 주된 의의는 방문객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의 고전적인 맛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들을 선보이는 데 있다. 요식업체들에게서 이 축제는 요리의 경연이기도 하다."고 시장이 설명했다.

몇몇 요식업체는 특별히 미식 축제 참가를 위해 메뉴를 실험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두둑' 카페의 요리사인 샤로비진 후스니드지노브는 새로운 요리들은 고객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메뉴는 미식 축제 종료 후에도 주문할 수 있다.

모든 요리 세트의 지정 가격은 750루블리로 여기에 만두와 함께 샐러드와 디저트,수프가 포함된다.

(8면에 계속)

주여성회, 어머니의 날 기념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로 기념하여 지난 26일 (토) 오후 3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어머니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사할린주 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의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사할린한인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의 협력 아래 진행된 이 행사에는 1세 할머님들 50여 명을 특별 손님으로 모시고 축하하며, 선물도 전달했다. 그외 50-60대 손님들도 많이 참석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임 엘비라 부회장,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김 타치아나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등이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관객들의 기분을 한층 돋우는 재미있는 공연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으로 새로 창단된 보컬 앙상블, 〈희망〉무용단, 그리고 흐뭇했던 이병일 원장의 탈춤 공연,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공연이 매우 아름다웠다.

여성회 측에서는 이날 맛있는 식사자리도 마련했고 행사는 즐거운 노래와 춤판으로 이어져 손님들이 흥겨워하며, 많은 웃음과 함께 즐거워 했다.

(본사 기자)

〈내가 바다가 될 때〉 최 빅토리아의 장편소설, 올레그 쿠즈네초브 문학상 수상

지난 11월 23일(수) 올레그 쿠즈네초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중앙도서관에서 올레그 쿠즈네초브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공모전은 〈소설〉부문과 〈사할린 향토사〉부문, 〈문학비평〉부문으로 나뉘었고, 우승작들은 500부씩 출판되었다. 그리고 〈문학 비평〉부문에서 선정된 '사할린 이주민의 체험(1853년 -2002년)'책에 대한 서평은 문학 전문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사할린 향토사〉부문에서는 사할린 국립 고문서 전문가 마리나 그리자에와 역사학 박사의 〈여행 사진〉연구서가 선정됐다.

〈소설〉부문에서는 사할린 동포 최 빅토리아(56세)의 소설 〈내가 바다가 될 때〉가 선정됐다.이 책은 최 빅토리아의 첫 장편소설이다. 빅토리아는 2019년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러시아어 에세이 공모전에 참가해 〈할머니에게 가는 길〉이란 글로 수상한 바가 있다. 그때 러시아 작가동맹 회원인 허 로만 시인·양 세르게이 작가 그리고 장태호 시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문학적 실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 이후 소설 집필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할린 동포와 관련된 여러 편의 단편소설을 썼으며, 새고려신문에 투고하기도 했다. 올해는 시 중앙도서관 올렉 쿠즈네초브 문학상에 도전하여 수상했다.

도서관 측에 따르면 최 빅토리아의 소설 〈내가 바다가 될 때〉는 독자들 사이에서, 특히 한인들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할린 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라후토 시대에 사할린 섬에 오게 된 한인들과 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수많은 사할린 한인들 속에 살았던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책을 헌정하고 있다. 책은 가라후토 시대와 현재 사할린 한인의 삶에 대한 두 개의 역사적 층을 나란히 전개하고 있다. 작가는 소녀 김 레아의 가족 이야기에서 '이산가족'의 비극을 이겨낸 사람들의 2개의 역사층에 다리를 놓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형식으로 서술하여 이 책을 처음 읽는 독자들 사이에서는 사할린 한인들의 민족적 정신, 전통, 명절, 윤리, 자녀교육과 노인 공경에 대한 서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공감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서 최 빅토리아 작가는 영주귀국하신 부모님을 뵈려 잠깐 대한민국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화상을 통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사할린 작가 이리나 레위테스는 "빅토리아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바로 감정의 폭풍에 빠졌습니다. 훌륭하고 강력한 소설입니다.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정도로 전문 작가 같아요. 그녀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씁니다. 이 소설은 사할린 사람들, 그리고 사할린 사람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라며 후감을 전했다.

이 책의 출판 작업은 «섬 지역 도서관»출판사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하였고, 이외에도 도서관의 사서가 이 책의 일부 〈제화공 명하의 3개 이름〉을 오디오 책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녹음 내용은 https://ys-citylibrary.ru/page/3_imen_sapoh/ 로 접할 수 있다.

새고려신문사는 최 빅토리아 소설가와 따로 만남의 자리를 준비할 계획이다.

(본사 기자)
(이예식기자 촬영)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옥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주제: 사할린린 동포 문제:해결방안

주최: 국제 실무학회(사할린 한인회)

상트 페테르부르크 발표용 (2022. 9. 27.)

* 아래표는 본 논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 승계의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임.

대한민국 국적 승계의 근거 법령(2006. 3. 30. 2003헌마806, 조대현 재판관의 견해)
1.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1848. 5. 11. 제정)
제2조;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2.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칭함-
대만인과 사할린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일제시대 민적법에 따른 민적이나 <u>조선호적령</u> 에 따른 조선 호적은 일본의 호적법에 따른 <u>일본호적과 준별</u> 하였으며,
조선호적과 일본호적과의 교류는 혼인·이혼·입양 인지 등 특별한 신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시대에는 <u>호적을 기준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 조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법적으로 구별</u>
3. 일제는 194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만주 거주 무호적 조선인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로 적을 취득하게 하여 <u>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u> 으로 하는 취적사업을 하였으며,
조선호적령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임시조례 제5조는 <u>일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국적을 소 급적으로 회복</u>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며,
호적의 임시조례에 관한 규정(1948. 4.1.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38선 이남에 거주하는 자의 신고를 받아 38선 이북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가호적이 편제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임시조례에서 말하는 ' <u>조선인</u> '이란 일제시대에 <u>조선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졌던 사람, 즉 조선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될 사람을 의미</u> 한다고 본다.
4. 제헌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u>대한민국임시헌법</u> (1919. 9. 11.) 제1조에는 ' <u>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u>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 4. 22.) 제3조에서는, ' <u>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 민족으로 함</u> '
5. 이상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임시조례 제2조의 내용은 제헌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1948. 5. 11. 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부여받은 조선인 및 그 후손들은 1948. 7. 17. 제헌헌법 제3조,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은 임시조례상의 조선인, 즉 <u>조선호적 입적자 또는 입적대상자</u> 라고 할 것이다.

(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в Ташкенте

26 ноября во Дворце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главно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Узбекистана, прошел грандиозный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85-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Узбекистане, 3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это чествование всей работы, проделанной корейцами Узбекистана в память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ы, как обознач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 «85 лет по пути обретения».

Четырехтысячный зал был полон. Концерт превзошел ожидания зрителей.

Открылся занавес и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предстала масштабная картина сводного хора АККЦУ и солистов Ирины Нам, Магдалины Ким и Ясины Омар-Мун. Красный цвет ханбоков хористов празднично выделял белый цвет солистов. Это была увертюра концерта.

Затем депутат Олий Мажлис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ККЦУ Пак В. Н. открыл церемонию торжества, он представил и поблагодарил гостей —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дружественным связям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при Кабинете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урбанова Рустама Джавлатовича,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э Ёнг Сама,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им Хи Санга, Чрезвычайных и Полномочных послов Чэ Ёнг Ха, Чон Дэ Вана и Ли Ук Хё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ООК Василия Ивановича Цо, члена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им Г. Н.,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Тигай В. И.

Потом последовали видеоприветствия Председателя Сената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нзилы Камаловны Нарбаевой,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Чжин Пхё,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Чжина.



После приветствий был показан короткий фильм Медиа группы АККЦУ, посвященный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датам.

И начался концерт с песни о памяти ушедших в исполнении Заслуженной артистки Узбекистана Галины Шин.

Режиссер концерта Виктория Тен на огромной сцене Дворц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поставила значительные номера с коллективами АККЦУ. Три балетные группы были объединены в один номер, то же самое было и с детскими группами, оттого зрелище представлялось масштабным, даже восхитительным. К-роп группы тоже выступали вместе в одном номере.

Лауреаты конкурса «Наши таланты» выступили вместе с попури корейских дорам.

В концерте также был номер «Жар птица» из грандиозного дефиле FASHION HANBOK IN UZBEKISTAN.

Украшением концерта, конечно, были звезды Узбек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Узбекистана Женисбек Пиязов, Заслуженная артистка Узбекистана Озода Нурсайдова, певец Ёркинхужа Умар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песен трот Ким Чжи Хён, певица Кил Гун,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илась, как танцующая певица. Их номера и выступления были потрясающими.

Вели концерт Владимир Югай, Надежда Ни и Надыр Мухамедханов.

Режиссер-постановщик Виктория Тен тонко сумела подать настроение торжественных дат — крутая работа!

Финал концерта был впечатляющим, он запомнится надолго.

Сайт "Корё сара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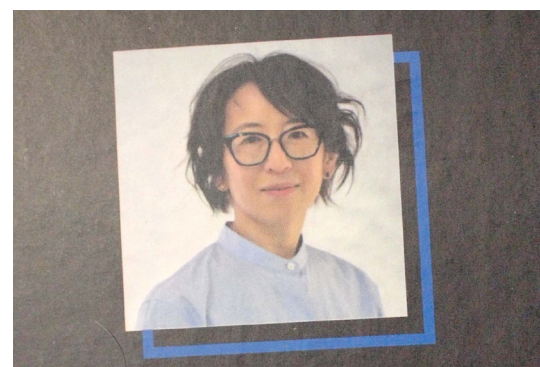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зентовали книги победителе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имени Олега Кузнецо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Центральная город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имени О.П. Кузнецова вошла в число 1500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ов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Итогом стала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емия имени

Олега Кузнецова», ставшего продолжением област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Книга года». В июне 2022 года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авторы, чьи произведения жюри отдало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ях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проза» и «Сахалинское краеведение», а также автор лучшей рецензии на книгу (номинация «Литературная критика»). По условиям премии книги были изданы тиражом 500 экземпляров. А рецензия-победитель Вадима Горбунова на книгу историка Виктора Щеглова «Опыт сахалинских переселений (1853–2002 гг.)»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 литературно-познавательном журнале «Слово» (2022, № 17).

Читателям представили монографию «Походная фотография»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сотрудни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ины Гридяевой, посвященную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науки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В книгу вошли уникальные снимки, сделанные во время научных экспедиций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фотографами, так и сами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Роман Виктории Цой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вызвал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читател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так как темой книги стала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чиная с 1930-х годов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ходе телемост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читатели пообщались с автором. Книга стала данью памяти ее бабушке и дедушке, которые были в числе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эти годы на остров. В ней параллельно развиваются два исторических пласта: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ериода Карафуто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От истории семьи девочки Леи Ким автор перекинула мостик к истории народа, пережившего трагедию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 темы, которая, вероятно, впервые столь масштабно описа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прозе.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по форме,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 сути — таково мнение первых читателей о книге, единодушно отмечавших достоверность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сего, что касается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корейцев, традиций, праздников, нравов, воспитания младших, уважения старших.



— В 2019 года областн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мечала 70-летие, — рассказала ее редактор Виктория Бя. — И тогда впервые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Эссе Виктории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стало удачным стартом. Жюри очень высоко оценило 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отметили слог, стиль повествования, ее литератур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Кузнецова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оманом. Прочл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ностальгировала. Через призму истории маленькой девочки Леи, через ее детство, юность и взрослую жизнь представлена очень близкая и понятн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тепло.

— Начала читать книгу Виктории, и сразу буря эмоций. Хорошая, крепкая проз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текст. Невероятно, что это дебют. Она пишет не рукой, а сердцем. Роман будет интересен всем —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ам, — поделилась писательница Ирина Левитес.

Работа над книгами шла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ая библиотека»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Кроме того, библиотекари выпустили в аудиоформате фрагмент книги — главу «Три имени сапожника Мен Ха».

Презентация стала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аккордом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имени Олега Кузнецов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поиск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творчества талантливых сахалин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библиотекари не только бескорыстно поделились новинками со многими библиотеками и музеями области, но и провели выездные презентации — в Аниве, Корсаков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Долинске.

Ирина ЦОЙ
Фото: ЛЕ Е СИК

Сергей Кравчук пригласил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застройщиков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эр Хабаровска встретился с консу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а Бен Кю

Встреча мэра Хабаровска Сергея Кравчука и консула Южной Кореи Ха Бен Кю прошла 25 ноября в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 ней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ообщает ИА Amur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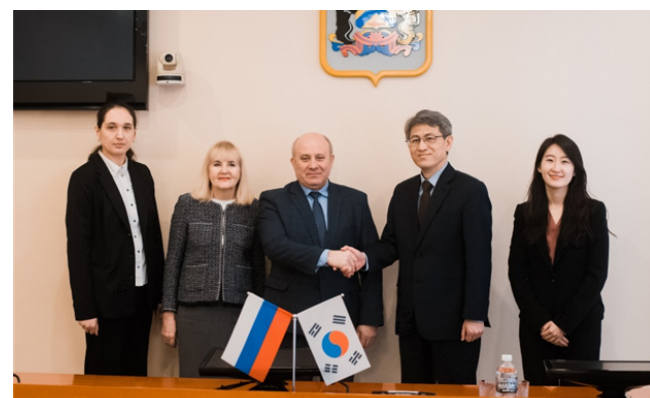
Так, Сергей Кравчук поблагодарил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за бесплатное лечение детей из Хабаровска в клиниках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обсудил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пригласил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хабаровских выставках, а застройщиков — к участию в городских проектах.

Ха Бен Кю отметил, что ему известно о вклад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ропорта «Хабаровск. Новый». Корейский генконсул добавил, что даль-

нейшее партнерство возможно и в других сферах.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пикеры пришли к соглашению: для консула подготовят презентацию возможност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Хабаровска и предприятий Южной Кореи, донесут для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преимущества инвестиций в краевую столицу.

— Я рад этой встрече. Надеюсь, мы вернемся на те пози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е были у нас до пандемии. Благодарен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нсул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то, что он готов рассказать бизнесу о том, чем богат наш рынок, чем он интересен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ейчас у нас в городе работ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роительная фирма. Работает успешно. Но рынок расширяется, мы будем рады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ергей Кравчук по окончании переговоров.



Встреча мэра Хабаровска Сергея Кравчука и консула Южной Кореи Ха Бен Кю прошла сегодня в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Фото: Ольга Цыкарева, ИА AmurMedi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Фотохудожники РК и России продолжают обм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российские фотохудожники продолжают обмены. С 16 ноября по 10 декабря в галере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рк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йдёт выставка «To.Vladivostok»,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стер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фотографии Квак Мён У, Нам Чжуна, Чон Мин Со, Чон Мён Сика. Их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выставлены в галерее, посвящены облику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жизн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Все работы были сделаны в период с 2005 по 2019 год.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галерее Yart в сеу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Чун-гу пройдёт показ работ российского фотохудожника Глеба Телешова, который был рекомендован галереей «Арка». Его фотографии выполнены в необычном, абстрактном формате.

В РК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зданию аналога NASA

В РК активизируется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Управления по аэронавтике и исследованию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аналог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NASA. 28 но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общили о запуск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Проект нацелен на реализацию политики развити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формирование единой профи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и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ерсонал нов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уд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из числа экспертов,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структуры и сохрани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наработки в сфере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Госкомпании РК передают технологии малому и среднему бизнес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передаст частному сектору 337 технологий, принадлежащих 12-ти госучреждениям и вуз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 подобную практику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м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передаются технологии, не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в госсекторе. С 2013 по ноябрь этого года 26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и госкомпаний передали 1.268 част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2.766 технологий.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к передаче технологии касаются сфер энергетики,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и экологии.

Крупные универмаги сокращают энергопотребление

К концу года самыми яркими местами в Сеуле становятся крупные универмаги, фасады которых привлекают покупателей яркими рекламными вывесками. Между тем, в условиях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 мире всё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яется вопросам сокращения энергопотребления. В одном из столичных универмагов «Синсэге»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ночи весь фасад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огромный экран, создающий предновогоднюю атмосферу. Разрешение экрана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в два раза, однако расходы на его содержание удалось сократить за счё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ветодиодных ламп и бывших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рамок. За счёт светодиодного освещения и дешёвых рам компания реализует концепцию управления, нацеленного на вовлечение бизнеса в ре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их, социальных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проблем. Кроме того, время работы освещения в ночное время было сокращено на полтора часа. За месяц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этих мер сопоставим с посадкой около 50 сосен.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лагает усилия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дол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естественного света. В условиях роста цен на энергию универмаги делают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политике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влечь покупателей.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запрет на одноразовые пакеты и посуду

С 24 ноября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газинах вводится полный запрет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иэтиленовых пакетов покупателям как безвозмездно, так и платно.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 запрещ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ластиковых трубочек и бумажных стаканчиков. Однако в течение года объявлен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за нарушение новых правил не будут взиматься штрафы и применяться другие меры наказания.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дноразовых предметов уже действуют в крупных магазинах площадью свыше 3 тыс. кв метров и супермаркетах площадью свыше 165 кв метров.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обычных круглосуточных магазинах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пакеты можно купить за 100 won (7 центов). Запрет касается также бесплатных одноразовых пакетов для зонтов, которые во время дождя выкладывают при входе в крупные универмаги, торговые центры и другие подобные объекты.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стадионах и други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х запрещ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одноразовые пластиковые и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атрибуты в поддержку любимой команды. Южнокорейцы неоднозначно оценивают реш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логии о годовом переходном периоде,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помочь предприятиям торговли привыкнуть к новой системе.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что он лишает смысла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дноразовых предметов.

(RKI)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Героя КНДР" ракетной пусковой установке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Героя КНДР" пусковой установке, которая 18 ноября произвела успешный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пособной долетать до США.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 Сеуле же считают данный шаг крайне необычным, так как подобные з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бычно для людей.

"Постоянный комитет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присвоил звание "Героя КНДР" с вручением золотой звезды и ордена первой степени транспортно-пусковой установке N321 ракеты "Хвасон-17",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граф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Напомним, что 18 ноября КНДР из окрестностей Пхеньяна произвела успешный запуск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МБР) "Хвасон-17", которая поднялась более чем на 6000 км и пролетела почти 1000 км. Если бы ракет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по оптимальн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альности траектории, то она улетела бы на 15 000 км.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КНДР получила ракету, способную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на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ША. Судя по публикациям в СМИ КНДР, на запуске лично присутствовал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ого сопровождали супруги Ли Соль Чжу и 10-летняя дочь Ким Чжу Э.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отметили, что КНДР ранее никогда не присваивала звание "Героя КНДР" ракетной пусковой установке. "Герой КНДР" эквивалентен по статусу, смыслу и значению "Герою России", а потому предусмотре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людей. Правда, в КНДР иногда присваивали это звание заводам, но все же гораздо чаще людям и никогда пусковым установкам.

Как считают в Сеул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НДР решила отметить свой большой прорыв, который был совер-

шен не только по части создания самой ракеты, но и придания ей мобильности. Транспортно-пусковая установка позволяет перевозить ракету, что затрудняет ее поражение и повышает фактор внезапности. "Ранее с подобными установками у КНДР бы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облемы, но, похож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инженеры и техники сумели решить е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Отде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он Мин.

Как отмечают военные эксперты Юга, на этот раз точное место старта ракеты произошло в нескольких километрах от обычной для этого полигона точки,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и обусловлено появлением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возить ракету при помощ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установки. Отметим, что пусковая ракетная установка или, если говорить точнее, пусковая установка-транспортёр (в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спользуется аббревиатура TEL - transporter elector launcher) N321 имеет 22 колеса и 11 осей. На нее сразу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зарубе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гда СМИ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ли первые снимки с запуска.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сть другая МБР "Хвасон-15", и для ее перевозки и запуска используется своя установка, но она поменьше, имея 18 колес и составляя в длину около 21 м. "Герой КНДР" пусковая установка-транспортёр N321 в длину, скорее всего, составляет 26-28 метров.

Отметим, что в связи с успешным запуском награждена была не только ракетная установка, но и ряд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ачальн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сь созданием и испытаниями "Хвасон-17".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ям ЦТАК, ряд военных КНДР были повышены в званиях, а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ордена и медали. В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и поздравлениях помимо Ким Чен Ына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и его дочь Ким Чжу Э.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Опубликована книга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на обобщает историю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за последние 100 лет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KF) 28 ноября сообщил, что впервые опубликована книга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12+), охватывающая 100-лет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лавянско-евраз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KASEUS)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29 ноября пройдет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12+) в отеле "Лотте" в Сеуле и Моск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нститут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Монограф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ышла благодаря многолетним коллектив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24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обеих стран, сообщает PrimaMedia Korea.

Корейская версия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томов. В книге выделено 10 основных этапов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начиная с 1860 годов, включая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у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до наших дней.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Эксперты из обеих стран отразили свое видение 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обмен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Россия оказала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современную и новейшую истор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но доступ к материалам, хранящимся в России, отчасти ограничен, поэтому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носят ограниченный характер.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 подход к исследован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получился весьма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м.

Выход книги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ся в 2018 году перед

Внештатные работники школ требуют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25 ноября Корейский профсоюз внештатных работников школ начал забастовку, требуя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ые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а также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рака лёгких у работников школьных столовых. Профсоюз объединяет поваров, организато-

ров внеклассной работы с учениками и других внештатных работников школ. В связи с забастовкой в 132 из 1.400 школ Сеула вместо полноценных обедов ученикам раздают булочки. В 12 школах работа столовых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руководству

пришлось изменять расписание уроков.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о всеобщей забастовке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80 тыс. человек. Они требуют повышения оплаты труда и гарантий стаби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Работники школьных столовых находятся в особенно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Они требуют замены систем вентиляции в помещениях и снижения нагрузки.

KBS World

На развитие дет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з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ено почти 70 млн рубле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лен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а также медицинской и бытовой мебели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учреждениях.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нащ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етс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служб из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выделено более 106 млн рублей.

Аппарат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мониторы контроля жизненно-важных функций и друг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может спасти жизни детей и рожениц, скоро появится в областном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Благодар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аппаратуре врачи могут выхаживать младенцев, рожденных с экстремально низкой массой — от 500 граммов.

— Каждый такой ребенок ещ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растет до веса, при котором 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ышать, глотать. Ему нужно помочь, чтобы заработали те органы, которые не успели 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в утробе матери. Врачи отслеживают сотни параметров ребенка, чтобы вовремя принять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чень поможет специалистам,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 перинатальной помощи Ольга Колесова.

В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тавки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зволят обновить кабинеты реабилитации, охраны зрения и лабораторию. Так,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приборы для неинваз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уровня билирубина у новорожденных без прокола кожи. Эти процедуры для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станут полностью безболезненными. Всего перечень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30 позиций.

— У нас сейчас заверш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новой пристройки, в которой разместятся инфекционный и неотложный бло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мы сможем приобрести новую мебель — кресла, кушетки для детей, телевизионную панель для просмотра мультфильмов, — добав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Колба.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жидает и детскую областную больницу.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ежегодно принимает на стационарное лечение до 9 тысяч детей, еще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поликлинике. Современная аппаратура поможет врачам в оказани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помощ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мфорт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юных пациен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участок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Работы провели на отрезке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6,3 километр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Региональная и местная дорожная сеть», включенного в нацпроект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частка дороги стартовал в июне 2021 года. В сутки здесь проходит около 10 тысяч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проведение работ на участке трассы от Холмского шоссе до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55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з бюджетов всех уровней.

— Это важный участок дорожной се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й связывает несколько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ов.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привести дорогу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комфорт для водителей. Эта задача выполнена качественно и в срок.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применен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а не только дорога, тротуары для пешеходов, освещен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возведены системы водоотведения, чтобы дорога служила долго,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В процессе работ строители уложили геосетку асфальтобетона, изготовленную на основе полиэфирных нитей, пропитанных битумом. Такая конструкция создает усиленный каркас, который отличается повышенной износостойкостью.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бустроили тротуары с перильным ограждением, остановочный комплекс с пешеходным ограждением.

—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объезд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 только связывает районы города, но и распределяет транспортные потоки, а также разгружает внутренние городские линии от проезда транзитного, доставляющего грузы с юга на север острова, и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этому крайне важно, чтобы участок был безопасны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мониторинга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Федорук.

С момента ввода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контракто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подрядчиком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элементов дороги сроком до 5 лет.

— Раньше стояли здесь в пробках, не протолкнуться было, теперь времени на дорогу уходит гораздо меньше. Вообще, очень заметно как в нашем городе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участки дорог. Я доволен темпами, — поделился автомобилист Алексей Чугунов.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

ренко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реализацию нац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5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риведение в порядок трассы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 и построили 30 участк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 и 34 —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только плотно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ом ремонт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дорог, но и следит за их последующим состоянием и текущим содержание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разработала и утвердила программу проведения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о исполн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34-ФЗ «О проведен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тдель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 551 от 28.11.2022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проведения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Программа проведения эксперимент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комплекс мер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кращение уровн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увеличение их поглощения, а также ожидаемый срок достижения участником эксперимента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не позднее 31.12.2025.

Климат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как важнейшая часть повестк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включающей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экологичной среды, внедр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для жителей и создание эффе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21 году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 объ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намерена достичь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не позднее 2060 года. Эксперим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до 2028 года, он позволит отработать вопрос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я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экспериментом в регионе строится на принципах проектного менеджмента,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у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ми, — отмети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ка Программы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участием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широкого круга экспер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региональных 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рупны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и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окумент прошел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суждения и согласован с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 Сахалин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 это начало мас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щественных изменений в сфер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и клима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овестк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на принципах экологичности,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с вовлечением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орон.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широкий портфель проектов в разных секторах — от сам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ктик до наукоем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задач и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 области оценки и мониторинга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й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лена Милич.

Программа носит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устойчивое сниж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увеличение их поглоще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не позднее 31.12.2025 года за счет реализации комплекса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ключе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Газификация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азвитие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и,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в городском хозяйстве, Декарбо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ектора,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Устойчив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родными экосистемами, Квотирование выбросов предприятий и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ализаци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и методик инвентаризации и верификации выбросов.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перечня региональных 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гласно сформированной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е — в список вошло 50 компаний с выбросам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от 20 тысяч тонн CO₂-эквивалента в год (оценка проведена за базовый 2021 год). В рамках эксперимента круп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углеродную отчетность, отражать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участвовать в отработке механизмов квотирования.

Ранее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сделка с углеродными единицами от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был актуализирован региональный кадастр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й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2019-2021гг. Суммарные антропогенные нетто-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1 год составили почти 2 млн. тонн CO₂-экв. По анализу динамики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й с 2019 года можно заключить, что наблюдается ежегодное снижение нетто-выбросов, т.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ремится к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ыполняет ранее взятые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ыбросов и росту их поглощения в CO₂-экв., а состоявшееся утверж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еще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му движению к намеченной цели.

Клима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6.03.2022 N 34-ФЗ "О проведен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отдельны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кумент вступил в силу с 1 сентября 2022 года. Эксперимент продлится до 31 декабря 2028 года.

23 ФАП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тали «умными»

13 современных программно-аппара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Умный ФАП» поставлены в сельские медпункты в этом году, 10 —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в 2021-ом.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лично себя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о, 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должить оснащение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Накануне СМАРТ-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лучили ФАПы в Гастелло и Леонидов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Измерение давления и уровня холестерина, общий анализ крови, электрокардиограмма — теперь жители сел могут пройти базовую диагностику, минуя посещение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 Теперь мы можем сдать анализы в родном селе. Это стало таким облегчением для нас всех. Особенно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и всех тех, кому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трудно ездить на автобусе в город,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Леонидово Татьяна Моисеева.

Программно-аппаратный комплекс «Умный ФАП»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ключения к Интернету, аппаратура собрана в компактный кейс для безопасно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 хранения. В комплект входят ноутбук, электрокардиограф, тонометр, анализатор крови, аппарат измерения холестерина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Еще один СМАРТ-комплекс скоро появится в Матросово. Сейчас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здесь возводится новый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После сдачи объекта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нов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 Новая аппаратур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 выездной форме обследовать пациентов и пров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ее результаты сразу же отображаются на компьютере. Жители сел могут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рамках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или при наличии каких-либо жалоб на здоровье,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чали осваивать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Южных Курил. СМАРТ-аппаратура была доставлена в села Головинно и Дубовое. Также новая аппаратура поступила в сел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ов.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т новую входную группу уже в декабре

Для удобства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пристройке расположится входная группа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инфекцион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для нуждающихся в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д контроле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Шумные грязные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велись с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входной группы, остались позади.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или к финальному этапу — чистовой отделке. Благодар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этой части здания перепланированы помещения, добавлены несколько кабинетов, появились просторные коридоры.

— Пристройка объединит два блока — инфекционный и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Для этих групп пациен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тде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и входы. Будут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пациенты между собой не пересекались и не создавали угрозу перекрестного инфициро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алентина Ли.

В новой пристройке вс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ля удобства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 отдельные входы для разных групп больных, просторная колясочная, гардероб, места ожидания и туалетная комнат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учетом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норм. В инфекционном отделении прием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трех кабинетах: в двух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врачи, третий — для забора анализов. Специалисты «неотложки»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пациентов в двух кабинетах.

— В период сезон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ОРВИ наплыв посетителей очень большой. За день бывает до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обращений. Часть врачи обслуживают на дому.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иходит и в поликлинику, для них теперь будут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добав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Татьяна Колб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выделено 26 млн рублей.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строители планируют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에서 '유언'책 출판

올해 KIN(지구촌동포연대)이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과 함께 고 이희팔 화태 귀환재일한국인회장의 구술기록 "유언"이 출판 계획을 추진하였다. 11월 30일부터 한국에서 이 책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이희팔 어르신은 일생을 사할동포의 귀환운동에 바쳤으나 정작 사할린 동포사회나 한국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였다.

(본사 편집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다'

일본의 패전 이후 사할린에 버려진 조선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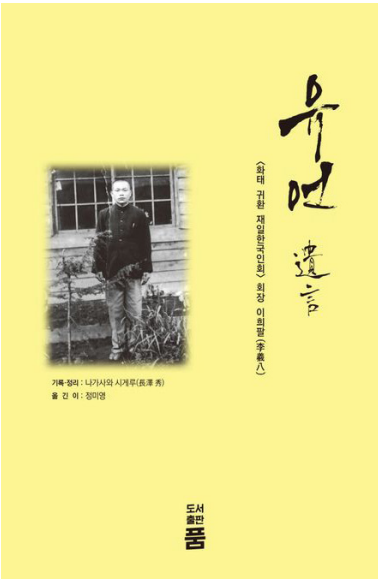
국교조차 없었던 한국과 소련 사이에 편지를 중계하며 사할린에 남은 동포와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이희팔 씨의 집념이 대국 소련을 움직이게 했다.

한국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인 이희팔 씨가 이루어냈고, 그 후 수천만 명의 동포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책은 이희팔 씨의 귀중한 구술 기록과 관련 자료집이다.

따듯한 기부 손길로 이희팔 선생님의 구술기록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 기쁘나다. 하지만 선생님께서서는 2020년 9월 6일에 세상을 떠나시어 안타깝게도 실제 '유언'이 된 이 책을 하늘에서 보실 것 같습니다.

(〈도서출판 품〉출판사의 페이스북 글) 책 소개

923년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난 이희팔 씨는 20세가 된 1943년 5월에 화태 인조석유(주) 인부 모집에 응모해 2년 계약 조건으로 화태(樺太 사할린) 섬으로 떠난다. 모집 당시 조건과는 전혀 다른 탄광 인부로 일하다 종전 직전에 사할린에서 현지 징용된다. 해방 직후 소련의 점령지가 된 남사할린에 남겨진 수만여 명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되었다. 1946년, 일본 정부가 시작한 귀환사업의 대상은 일본인들뿐이었다. 이희팔 씨는 사할린에서 재혼한 일본인 아내의 동반자로서 1958년 1월에 3차 귀환선을 타고 간신히



일본까지 귀환할 수 있었다. 그 후 함께 귀환한 동료들과 〈화태(樺太) 귀환 재일한국인회〉를 만들어 사할린에 남아 있는 동포들의 귀환 운동을 시작한다. 국교조차 없었던 한국과 소련을 잇는 수천 통의 편지를 중계했고, 사할린에 남은 동포와 한국의 가족들을 재회시키려고 막노동을 해 번 돈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일본에 초청했다. 어떻게든 그들을 고향의 가족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이희팔 씨의 집념은 공산국가 소련을 움직이게 했다. 가족과 만나기 위해 사할린에서 일본에 와 있던 한 여성을 최초로 한국까지 데려가 결국 노모와 상봉하게 했다. 당시 한국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인 이희팔 씨가 길을 열었고, 그 후 수천만 명의 잔류 한인들이 뒤를 이었다. 이 책은 반세기에 걸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낸 이희팔 씨의 집념이 담긴 귀중한 구술과 관련 자료집이다.

저자(글) 나가사와 시게루

1951년, 후쿠시마 현 출생. 와세다대학 졸업, 메이지대학 대학원 석사 수료,릿쿄대학 대학원 박사 후기와 정 종퇴. 고교 교원, 학원 강사, 미술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재일조선인 운동사 연구회 회원. 동인지 〈해협(海峽)〉 동인.

번역 정미영

2017년에 '도서출판 품'을 만들고 조선학교와 재일(在日) 관련 번역서를 출간하고 있다.

정선에 '인류무형문화유산아리랑비' 선다

기미양((주)국악신문 편집인)

랑보존회 서연운, 부산아리랑보존회 김희은, 사할린아리랑보존회 최미분, 사할린아리랑양상블 박영자, 서귀포아리랑보존회 유재희, 서도아리랑보존회 유지숙, 서울아리랑보존회 유명옥, 상주아리랑보존회 김동숙, 성주아리랑보존회 임옥자, 성주의병아리랑보존회 최문희, 아리랑연합회 기미양, 아리랑보존회 김영임, 안성아리랑보존회 조명숙, 연변아리랑보존회 전화자, 영남아리랑보존회 정은하, 영천아리랑보존회 전은석, 예천아리랑보존회 최수인, 왕십리아리랑보존회 이해술, 울릉도아리랑보존회 황효숙, 인제땃목아리랑보존회 권원희, 정선아리랑보존회 김길자, 제주아리랑연구회 장경숙, 진도아리랑연구보존회 강송대, 진천아리랑보존회 박소정, 청주아리랑보존회 강옥선, 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 기연옥, 하바롭스크아리랑보존회 김석복, 호주아리랑보존회 김재원.

한편 이 비문의 글씨는 한얼 이종선님으로 최근 대형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화제를 모은 분이다. 약력은 다음과 같다.

한얼 이종선 한국서학회 이사장, 동방대학원대학교 서예과 교수, 성신여대 미술대학 조빙교수, 한국서총 종간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강사, 중국난정서회 서울연구회장. 유농서회, 오거서루 등 주재. 대한민국서예대상전 등 50여 대회 심사위원. '한글 서예로 읽는 우리음악사설전시회'(21) 외 개인전 6회. 한글서예 오늘날과 내일 전, 광개토대왕비 특별전 외 초대전 400여회 출품. 불교방송개국 기념비(97), 남산도서관 표지석(02), 고려대학교 개교 백주년기념비(06), 지리산 연곡사 사적비(21) 외 30여 곳 제액 및 금석문.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외 국내외 40여 기관 작품 소장.(www.arirangsong.com)

"기념비적 기념비',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아리랑비'가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강가에 세워진다.

아리랑의 고향 정선과 만형 정선아리랑의 포용력과 국내외 40개 지역 아리랑 전승단체의 대동정신이 대통합을 이뤄 세우는 뜻깊은 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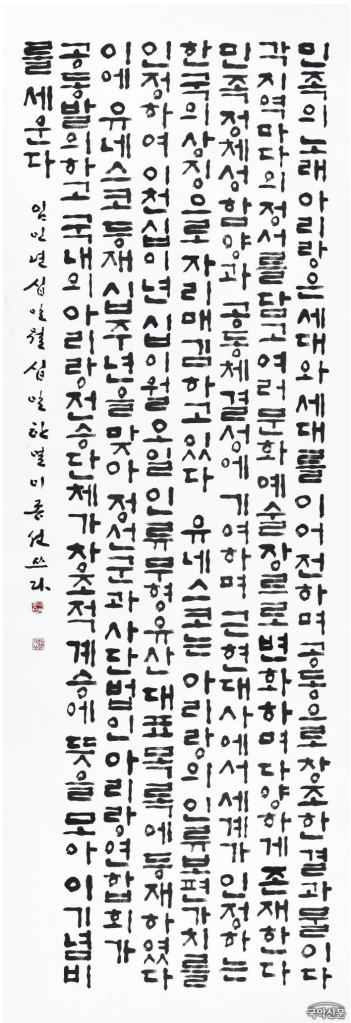
전면 글씨는 한글 서예가 한얼 이종선 선생이 쓰고 후면 취지문은 '정선체'로 새기고, 기단에는 40개 지역 단체와 대표자 명이 새겨진다.

비의 규모는 높이가 5m 40cm로 국내에서 가장 큰 비이다. 세워지는 곳은 여량면 여량리 아우라지강가이다.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합수되어 아우라진다(어우러진다)는 의미라서 정선군과 전승단체가 어우러지는 대통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최적지이다.

비 전면에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인류무형문화유산아리랑"이 새겨진다.

후면의 취지문에서는 아리랑이 '민족의 노래'라는 전제로 정선군과 사단법인 아리랑연합회가 공동 발의하고, 국내외의 아리랑 전승단체가 아리랑의 창조적 계승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하며 공동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각 지역마다의 정서를 담고 여러 문화 예술장르로 변화하며 다양하게 존재한다. 민족 정체성 함양과 공동체 결성에 기여하며 근현대사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천십이년 십이월 오일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여 아리랑의 인류 보편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정선군과 사단법인 아리랑연합회가 공동 발의하고 국내외의 아리랑 전승단체가 창조적 계승에 뜻을 모아 기념비를 세운다."



기단에는 대통합의 뜻을 모은 40개 단체와 대표자가 새겨진다. "등재 10주년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선군수 아리랑연합회 이사장 김연갑. 건립 동참 국내외 아리랑 전승단체" 아래 다음의 보존회와 대표자 대표자 이름이 새겨진다. (가나다순)

경기아리랑보존회 이춘희, 경산아리랑보존회 배경숙, 계룡산아리랑보존회 범진, 공주아리랑보존회 남은해,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 임규익, 구미아리랑보존회 김종남, 인동아리랑보존회 서주달, 군포아리랑보존회 한영숙, 동경아리랑보존회 전월선, 동두천아리랑보존회 유은서, 대구아리랑보존회 김상준, 문경아리랑보존회 송옥자, LA아리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작품 공모' 수상작 발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제1회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수상작 103편과 최다참여학교 3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 수상작 : 103편(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10편, 가작 89편)

- 최다 참여학교 : 중국(성도한글학교, 하나한글학교), 아랍에미리트(두바이한글학교)

올해 처음 시행된 공모전에는 52개국 191개교 2,800여 개의 작품이 응모되어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글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으며, 미국·필리핀·아제르바이잔·스리랑카·튀르키예 등 27개국 61개교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과 표현이 잘 드러난 작품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숨바꼭질 찾듯이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와 그림이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을 받은 최예린 학생(미국 찬양한국문화학교, 14세)의〈한글〉 작품은 한글의 가치와 창제 정신을 작품에 잘 담아내어, 한글의 고마움을 비단옷을 입은 꼬마와 흰 옷을 입은 꼬마가 벗이 되는 과정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곤 이사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한글날 기념 시화전에 많은 한글학교와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한글학교 학생들이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상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글학교 학생들이 한글에 대한 사랑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12월 19일부터 스테디코리아(study.Korean.net)에 전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기에 아산시의회 "역사의 희생자 사할린 한인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

충남 아산시의회 이기에 의원은 28일 제240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에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됐던 사할린 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201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 여겼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실정이며,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고령으로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겼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아산투데이)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попробовать сеты гастромарафона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1 ноября стартовал гастромарафон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12 кафе, баров и ресторано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рассказа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Фестиваль еды продлится до 11 декабря.

—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такого марафона – предложить посетителям разные варианты любимого блюда,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в классическом исполнении. Для рестораторов фестиваль является также конкурсом блюд, — объяснили в мэрии.

Некоторые за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участия в марафоне решили по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ть и расширить меню. Шеф-повар кафе «Дудук» Шахобиддин Хуснидинов отметил, что новые блюда пришлись гостям по вкусу. Их можно будет заказать 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гастротренинга.

Все сеты имеют фиксированную цену – 750 рублей. Помимо пельменей, в них могут входить салаты, десерты и первые блюда.

무료 요가 수업에 сахали인의 암환자들도 참석

무료 요가수업에 сахали인의 암환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암환자 연합> 사회단체의 대표인 알레리아 피구리나가 말했다.

이 기획은 지역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힘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무료로 스포츠 수업에 참여하고, 심리적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그룹에 주로 여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려는 사람들은 왓츠앱/텔레그램(Whatsapp/Telegram:+7-914-759-30-80)으로 등록할 수 있다.

Онкобольные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бесплатные курсы по йоге

Бесплатные курсы по йоге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онкобольные сахалинцы. Подробности расска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пациентов «Здравствуй!» Валерия Фигурина.

Проект был поддерж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Люди с трудным диагнозом безвозмездно могу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спортивным занятиям, а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психолога.

Как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сейчас в группе занимаются 15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все женщины. Пополнить ряды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можно записавшись в одном из мессенджеров в WhatsApp/Telegram: +7-914-759-30-80.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공항의 백만 번째 승객에게 무료 항공 이용권 증정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공항의 백만 번째 승객으로 야로슬라브 포포브 승객이 당첨됐다. 젊은 남성은 벌써 출국 심사대에서 벌써 예감이 좋았다. 풍선과 아름다운 스튜어디스들과 사진기와 사진사들은 아침 공항 홀의 모든 풍경이 뭔가 반가운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안톤 체호브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공항은 매해 초기에 공항의 좋은 전통에 따라 집계를 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과 같이 승객 이동량이 백만 번째 승객까지 이르고 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한동안 항공기를 덜 이용함으로 이러한 집계기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지표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 공항 측은 11월 25일 백만 번째 축하를 받은 승객에게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모스크바행 왕복 무료 항공 이용권을 증정했다. 야로슬라브는 일 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이용권을 언제 이용할지 생각하고 있다.

"저로서는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경사가 생겨 기쁘고, 무료 항공 이용권까지 선물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카잔으로 출발합니다. 얼마 후에는 칼리닌그라드를 방문하려고요. 아마도 2월쯤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국내

이동과 국내 관광이 활발하게 발전할 거라 봅니다. 저는 자주 항공을 이용하고, 석유 분야에서 일을 해서 국외로도 많이 항공을 이용하고 있다." 고 야로슬라브는 말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공항의 사장 안드레이 크루트초브가 백만 번째 승객에게 축하하며,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즐거운 비행이 되길 기원했다.

Миллионному пассажир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подарили бесплатный полет

Сообщение о том, что именно он стал миллионным пассажи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удивило Ярослава Попова. Но чуть позже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ризнался, что уже у стойки регистрации у него возникло хорошее предчувствие. Воздушные шары, красивые бортпроводницы, камеры и фотоаппараты — вся атмосфера в зале аэропорта этим утром говорила о том, что должно произойти что-то приятное.

В начале каждого г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аэропорт имени Антона Чехова по доброй авиационной традиции запускает отсчет. Ближе к концу года, как правило, всегда доходит до миллионного пассажира. Во времена пандемии этой отметки достичь не удавалось,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временно стали летать меньше, но сейчас показатели вернулись к доковидным.

25 ноября юбилейному пассажиру вручили подарок от аэропорта и сертификат на бесплатный перел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осква и обратно. Им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течение года, и Ярослав уже придумал, куда полетит.

— Для меня это является таким легким удивлением, и я рад этому событию, благодарен за подаренный мне сертификат. Сейчас я направляюсь в Казань, а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хочу посетить Калининград.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о будет февраль. Я думаю, в нынешнее время очень активно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внутренние на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ий туризм. Часто летаю, работаю в нефтяной сфере, очень много совершаю переле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за границу, — рассказал Ярослав.

Миллионного пассажира поздравил гендиректор АО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дрей Крутцов. Он пожелал приятного полета и удачи во всем.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крыта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